청둥오리

원앙

삵

너구리

무등산 습지가 살아났다

평두메습지 복원 7개월…청둥오리·삵 등 천연기념물·멸종위기동물 목격

무등산 국립공원 내 최대 습지인 평두메습지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돌아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 습지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북구 화암동 일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의 복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7개월 만에 청둥오리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지형 저층습지로, 과거 경작지였으나 폐경 후 자연적 천에 의해 습지 원형이 회복되고 있는 대표적인 '묵논습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훼손 구간은 심한 물길의 세굴(국부적인 침식)과 인근 경작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습지의 육상화 현상이 진행됐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습지 전문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가 함께 습지 내 훼손된 구간의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공정은 침식된 세굴부를 정비(진흙 차수벽 설치, 896㎡)하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식생롤(코이어롤·야자섬유를 이용해 채워진 통나무형태)를 설치(516m)했다.

또 다양한 동 식물의 식생을 위해 생태저류지를 조성(18m×11m)조성하고, 배수로 주변 토사제거 (60m)작업 등을 진행했다.

또 복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출입로를 설정하고 희귀식물과 습지의 핵심구역을 보호했다.

습지의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토양을 반입하지 않았으며, 친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복원 공법(진흙 차수벽, 식생롤 설치)을 병행했다.

이러한 복원사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두메습지내 무인센서 카메라(5대)를 설치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 삵(Ⅱ급)을 포함해 너구리, 청둥오리, 원앙, 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지난 2월 20일 확인된 큰산개구리 집단 산란을 시작으로 수생식물, 곤충, 양서류 등 다양한 종류를 먹이로 하는 청둥오리와 원앙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 삵의 서식까지 확인된 점은 평두메습지의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무등산국립공원측은 설명했다.

장기적인 평두메습지 보전·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유지 매수, 습지 내 특별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 2필지였던 평두메습지 내 특별보호구역 사유지를 구매해 7필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관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평두메습지 복원 사업 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평두메습지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두메습지 복원사업은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 우수 사례로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주최한 '2021년 제16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시 4월, 벌써 8년

광주·전남 세월호 8주기 추모 분위기 고조
기억·약속·책임 맞춰 다양한 행사 준비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다시 돌아온 4월을 맞아 올해 추모 기본 방향을 '기억' '약속' '책임'에 맞추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8주년을 맞는 올해의 기조는 '다시 세월호'(기억),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와 발걸음'(약속),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책임) 등이다.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현수막 200여장을 4월 한 달 동안 게시해 노란빛으로 물들였던 사업은 없어졌지만, 지역민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이끌 예정이다.

6일부터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이끌 현수막을 제작해 구별로 4장씩을 게시 할 예정이다. 또 다음날 7일 5·18 민주광장 주변에도 현수막을 게재해 지역민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잊지 않고 행동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폭력 인정하고 사과하라", "304명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참사는 되풀이 되고 있다", "진실은 침몰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사용된다.

먼저 15~17일에는 광주의 4개 구의 마을별로 촛불문화제를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5일 오후 6시 남구 백운광장 세월호 조형물 앞 공원에서는 '남구푸른길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4시16분부터 북구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부터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려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또 16일 오후 3시부터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는 버스킹공연과 시민자유참여 발언 등의 행사가 열려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날 사전 행사로는 수선화 꽃밭 정비와 현수막 교체, 노란리본 나눔 행사 등이 준비중이다.

참사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시민상주모임이 마을촛불별 피켓팅을 진행한 후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 후 피켓팅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민주광장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출발해 팽목항 내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시민상주모임은 또한 5·18민주광장에서 15일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무인 분향소를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지·산간 의료·복지서비스 '전남행복버스' 재개

전남도가 의료복지 취약지역 주민의 공공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행복버스는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산간벽지 주민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주요 서비스는 ▲혈압·혈당·인바디·인지선별검사 등 의료·보건 ▲이미용, 네일아트, 손·발마사지, 틀니·돋보기세척, 체험활동 등 문화·복지 ▲민원·법률, 홍보 등 상담·홍보로 다양하다.

전남행복버스는 지난 2월 도내 장애인시설 18개소 노인시설 28개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했다.

또 임시선별 검사소를 10회 운영하며 총 3579명(내국인 3321명, 외국인 258명)에 대한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자 30명을 찾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

전남도, 내일부터 민관 합동 동부권 6개 시·군 마을 순회

전남도가 6일부터 2개월 동안 여수시를 시작으로 시·군, 시민단체, 유족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발생한지 74년이나 지나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방문 신고 접수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피해 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 마을을 순회하며, 사건 피해 신고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주민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당시 관련 사건을 아는 도민의 증언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74년 만에 아픈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회가 생긴 만큼 유족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광주 북구, 어학 5종·한국사 등

광주시 북구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취업활동에 나선 청년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인 미취업 청년이며 접수순으로 200여 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이달부터 실시되는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한국사능력시험 등 6종 시험의 응시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청년 1명이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북구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응시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40개 업종 1243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43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제조·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역,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다.

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화학물질 취급량, 폐기물과 폐수 등 지난해 배출량을 오는 30일까지 직접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